

# 선거 다가오자 특정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전·현 도의원 93명 주승용, 총학회장 27명 이낙연 지지

뉴욕호남향우회 강운태 지지 주장에 이용섭 “과열 우려”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 단체와 정치인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지지선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논란도 빚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전·현직 대학총학생회장들은 7일 “전남지사에 출마한 새정치 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선대·호남대·순천대 등 이 지역 17개 대학 전·현 총학생회장 27명은 이날 ‘이나 연과 함께 젊은 전남을 만들자’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6·4지방선거는 단순히 도지사가 아닌 ‘노령화한 전남’을

‘젊은 전남’으로 변화시키는 대장정을 이끌어갈 전정한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안목과 자질, 겸증된 능력, 올곧은 정치구현을 위해 헌신해온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전남지사 출마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각종 자료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후보야말로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현직 전남도의원 93명도 이날 전남지사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주 의원은 도의원, 군수, 시장에 이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상향식 민

주주의 방식으로 성장해온 정치인이다”며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통합 신당 이미지에 가장 걸맞은 전남지사 후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을 가장 잘 아는 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나서 전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도지사가 꽤 당당한 전남, 잘 사는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지선언이 봇물로 이루어면서 광주에서는 때아닌 지지선언에 따른 지역 분열 논란도 빚고 있다.

7일 재선에 도전한 강운태 광주시장 측은 “김영운 미국 뉴욕호남향우회장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강 시장이 이제까지 광주시정을 이끌면서 광주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며 “한 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당선돼 광주의 모든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호남향우회 회장단도 지난 1일

“강운태 시장의 재선 지지를 선언했다”고 강 시장 측은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출향 인사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탓할 바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경쟁적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출향 인사간 갈등은 물론 광주지역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선거를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근기 전남도의원(곡성군수 출마)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손 전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도의회의장에 서옥기 선출

제9대 광주시의회와 제9대 전남도의회가 각각 제226회, 제285회 임시회를 갖고 임기 마무리 순서에 들어갔다.

시의회와 도의회는 오는 6·4 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씩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결산 정도의 의미만 갖는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갖고 광주문화도시조성기본조례안 등 조례를 심의·의결하고, 광주시의 보고를 받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임시회를 열어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조례안 등의 조례를 심의·의결하고, 완도교육지원청 등을 현지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7일 김재무 전 의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도의장에 서옥기(새정치·광양2·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서신임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 결과 52명 의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43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출마한 서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공석인 부의장에 정영식(새정치·순천1) 의원이 뽑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인기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7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지방대 출신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

새누리당, 지방선거 3호 공약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또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매년 1천 개 이상의 유망 창업 기업에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하고 본인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들이 지원자의 과거 학자금 대출 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문제 삼아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크

리우드 펀딩’ 제도와 고졸 취업생에 한해 소득세 14%를 면제하는 ‘청년희망통장(3년 유지 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층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20~30대 청년층 주택 마련 지원비(DTI) 완화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생 공공 기숙사와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생을 초등학생 보육교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당에서 실시한 청년 공약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제일 OP

15P - 3300만 원  
29P - 6500만 원  
53P - 1억 5500만 원

## 목포 근린주택, 매매 목포시 용당동 1056-5 '구' 맹수한의원 건물

- 2004년도 신축, 6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33P
- 임대상황 - 1층 5천만원에 월 550만원(아웃도어 매장) 임대  
2층 1억에 월 180만원(한의원) 임대  
3,4,5층 임대중. 6층주택 임대중
- 매매가 - 16억5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이전비 없음

## 순천 근린상가, 매매 순천시 왕지동 872-6 법원 정문농협 뒷건물

- 2013년도 신축, 5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80P
- 임대상황 - 1층 프랜차이즈 카페 가 계약  
2층 커피숍 임대(보 5천만원에 월 200만원)  
3층 보험회사 임대(보 7천만원에 월 180만원)  
4,5층 임대중
- 매매가 - 24억
- 법인체 인수 가능 - 이전비 없음

주인 직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알기쉬운 선거법 7)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리트윗’해도 처벌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은 어떻게?

◇주체·시기·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 훌페이지 등 포함)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NS,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사례 = ▲UCC 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위 ▲예비후보자 흥보물·선거운동용 명함·선거공보를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자신의 팩트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민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홈페이지의 URL을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그 배너를 링크시킬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게시·전송시 유의사항 =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체계별·발행일자 등)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게시·전송시 유의사항 =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체계별·발행일자 등)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조임근 경기대 교수는 현재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와 연계한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통합지출체계와 결산검사 내실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규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이 빚받침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차지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지출관리제도 구축,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